

광주시, 집중호우 대비 침수지역 대책마련

이용섭 시장, 공구의거리 찾아 보 교체, 하수관로 정비 등 논의 “전문가와 협의, 근본적 대책 추진”

광주광역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선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6일 오후 광주전 중보를 찾아 북구 운암동 공구의 거리 상인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집중폭우에 따른 광주전 역류 및 침수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해 폭우로 인해 광주전 역류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공구의거리 상인회’ 등 지역주민들의 광주전 침수 대책 마련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지역 주민들은 “광주전 수위와 공구의 거리 일원 지대의 높이가 같아 폭우 때마다 하수도 물이 광주전으로 흐르지 못하고 역류해 도로와 상가가 잠기고 있다”며 “공구는 특히 물에 취약해 폭우 때마다 막대한 재산 피해를



이용섭광주시장의 공구의거리 인근 광주전을 현장 방문해 시민을 만나고 있다.

보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한 공구의 거리 인근 지대의 침수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 교체, 하수관로

정비 및 자연재해 위험 요인 분석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

이용섭 시장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불안감, 불편함이 직접 표출되는 민원은 수시로 점검하며 챙기고 있다”며 “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올해 여름철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로 ‘호우, 폭염, 물놀이, 산사태’ 4개 유형을 선정하고 여름철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 안전관련 민원의 경우 시민 안전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점검단을 상시 운영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신속·정확하고 책임 있는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업무조정관 운영, 민원 이력제 확립, 민원서비스 평가 점검 시스템 강화,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업무 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으로 민원이 처리되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동네방네



우체국에서 영양군 지역사랑상품권 ‘영양 사랑카드’를 출시 했다.

영양군 우체국 영양사랑카드 출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7월 16일(금)부터 영양군지역상품권 ‘영양사랑카드’를 우체국에서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농협에서 영양사랑상품권을 종이형에 이어 카드형으로 발급을 시작한 데 추가로 우체국에서도 카드형 지역상품권을 출시한다.

영양사랑카드는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chak)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영양군 내 6개 우체국에서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체국 영양사랑카드를 신규발급 및 충전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300명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영양=김태우 기자 ktu3987@

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29곳 적발

경북도, 총 32건 행정처분 등 요청

경북도가 하절기 집중호우, 행락철 등 취약시기를 맞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단속에 나선 결과 점검 업체의 61.7%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달 21일 ~ 이달 9일 상수원 수계와 공장 밀집지역, 민원다발 업소에 대해 서부환경기술인협의회와 도·시군 합동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점검 대상 47개 사업장 가운데 29곳(61.7%)에서 32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32건의 위반행위는 대기 분야 22건, 수질 분야 10건이다.

유형별로는 비정상 가동 5건, 자가측정 미이행 2건,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6건, 기타 8건이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32건 중 시군 관할인 21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요청하고, 도 관할인 11건은 도가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집중호우, 행락철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 행위로 녹조 발생, 공공수역 환경오염 및 환경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며 “특별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전남교육청에 전문강사 양성 집합연수 현장 모습.

/전남교육청

고교학점제 전문가 키운다

전남교육청 ‘2025년 전면 시행’에 학생 진로·학업 설계 지원교사 양성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의 진로·학업설계 지도 역량 갖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해서 학습하게 되므로 학생들의 진로설계 및 교과 선택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마다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진로 선택을 못하거나 진로를 선택한 이후에도 계속 고민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 및 학업설계를 지원해 줄 교사가 필요하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상담, 과목선택상담, 학습설계지도, 학업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학업설계 전문가 양성과정(CDS: Curriculum Design Specialist)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학업설계 전문가 양성과정(CDS)은 일반고 교원 대상 원격연수 I, II, 집합연수 I, II 총 4개 과정으

로 운영된다. 원격연수 I, II 과정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기본과정이고, 집합연수 I, II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학업설계 및 이수지도 등을 중심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은 7월 16일 ~ 17일, 1박 2일에 걸쳐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일반고 교원대상 집합연수 I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고교 교육의 방향을 알아보고, 고교학점제 대비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의 학업설계·관리 등 교원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20명 이내 5분반, 실습형으로 진행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과목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및 교원의 진로·학업설계 지도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진로·학업설계 전문가 양성과정(CDS) 집합연수 II는 8월 27일 ~ 28일 실시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상주시, 가축분뇨시설 바이오가스화 전환

정부공모 선정, 사업비 213억 확보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환경부가 주관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 전환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213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4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사업은 친환경에너지 생산해 탄소중립 실현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2~2025년까지 총사업비 213억원(국170억원, 도비 13억원, 시비 30억원)을 투입해 일일 최대 125㎥(6억~7억원/년)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공모사업 진행

중)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소득사업(하우스단지, 편의시설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환경사업소에 기존 반입되던 음식물쓰레기와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공정을 추가함으로써 처리 효율을 높여 악취를 저감하는 등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 6월 준공된 태양광발전시설, 현재 진행 중인 환경기초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낙동강 주변 수열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농촌형 그린뉴딜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김홍기 기자 gi2136@

부산시, 여름방학 맞이 어린이 박물관교실 운영

부산시는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교생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북천박물관 강의를 및 전시실에서 ‘여름방학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운영한다.

‘여름방학 어린이 박물관 교실’은 북천박물관에서 자체 개발한 교구를 통해 가야 유물을 만들어보며, 1500년 전 가야를 이해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첫날 금동관, 투구(11일), 갑옷(12일), 등잔모양토기(13일) 등 매일 다른 유물을 주제로, 나흘간 오전·오후 하루 2회씩 진행된다.

부산지역의 초등학교생이라면 누구나 보호자 1명과 팀을 이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부산시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회당 2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부산=서진석 기자 call001@

광주시 복지사각 취약계층 발굴

광주시가 7~8월을 여름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생계 곤란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에 나섰다.

주요 발굴 대상은 휴·폐업자, 실직 일용근로자, 최근 기초수급·긴급복지 탈락 가구 중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중복입수자, 노인 및 1인 가구 중 고위험정보 입수자 등이다.

특히, 공공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위기가구발굴단이 올해 6월까지 발굴한 위기가구는 481가구이며, 기초수급,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광주형 긴급복지) 등 공적서비스와 더불어 민간 후원, 접수리 등 744건의 민간지원 연계가 제공됐다.

/광주=김태수 기자